

혈액투석 환자의 식이와 수분관리에 대한 간호사의 경험

염은이¹ · 서금숙²

청운대학교 간호학과¹, 가야대학교 간호학과²

Nurses' Experience of Managing Diet and Fluid in Hemodialysis Patients

Yeom, Eun Yi¹ · Seo, Kum Sook²

¹Department of Nursing, Chungwoon University, Hongseong

²Department of Nursing, Kaya University, Gimhae,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nurses' experience of managing diet and fluid in hemodialysis patients and to provide helpful information in improving care of hemodialysis patient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ten nurses who had experience of providing care to hemodialysis patients. Colaizzi's phenomenological method was used to analyze data. **Results:** Twenty themes were identified in the first stage of data analysis and were later categorized into ten theme clusters, of which four categories were derived. The four categories were 'developing a strong feeling of responsibility for management', 'acknowledging limits in performing duties', 'providing patient-centered education' and 'becoming a guide for the long treatment process'. **Conclusion:** The study results will be useful for improving nursing curriculum to ensure more effective and successful diet and fluid management in hemodialysis patients.

Key Words: Hemodiafiltration, Nurse, Patient, Qualitative research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만성신부전은 신장기능이 비가역적으로 손상되어 신대체 요법에 의지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질환이다. 국내의 신대체요법을 받는 환자 수는 70,211명으로 이 중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48,531명(69.1%), 복막투석 7,552명(10.8%), 신장이식 14,128명(20.2%)으로 혈액투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The Korean Society of Nephrology, 2012). 또한 2001년 이후 등록된 혈액투석 환자의 5년 생존율

은 72.6%, 10년 생존율이 54.2%로 혈액투석 환자 10명 중 약 5명은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The Korean Society of Nephrology, 2012) 혈액투석 환자의 만성간호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혈액투석 환자는 신장이식을 받지 않는 한 일주일에 2회 내지 3회 병원에 내원해야 하고, 지속적인 투석을 받으면서 기계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또한, 투석 후에도 질병의 성공적 관리, 급만성 합병증의 예방 및 관리, 생명 연장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혈관관리, 처방약물 복용, 수분제한과 식이요법 등의 자가 간호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Richard, 2006).

식이요법과 수분제한의 이행은 혈액투석 환자에게 주요한

주요어: 혈액투석, 간호사, 환자, 질적연구

Corresponding author: Seo, Kum Sook

Department of Nursing, Kaya University, 208 Samgye-ro, Gimhae 621-748, Korea,
Tel: +82-55-330-1156, Fax: +82-55-330-1142, E-mail: kscover1219@hanmail.net

- 본 연구는 2014년도 청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This work was supported by an Academic Research Fund of Chungwoon University in 2014.

Received: Apr 1, 2014 / Revised: Jun 4, 2014 / Accepted: Jun 10, 2014

자가간호이지만 환자에게는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으로(Tong et al., 2009) 혈액투석 환자의 식이요법에 대한 불이행은 58.1%에서 81.4%에 이르며, 수분제한에 대한 불이행은 68.1%에서부터 74.6%로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ara, Caglar, & Kilic, 2007; Kugler, Vlaminc, Haverich, & Maes, 2005). 혈액투석 환자는 투석기간이 길어지고 사회적 지지도가 낮을수록 식이요법과 수분제한을 이행하지 않으며(Yeh & Chou, 2007), 특히 엄격한 식이조절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환자들은 오히려 특정음식에 대한 집착을 보이게 되며 외식 시에는 평소에 자제해왔던 음식이나 물을 양껏 먹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Cho, 2008; Park, 2014).

혈액투석 환자 간호에서 간호사의 교육은 자가간호 이행을 증가시키고 합병증 발생을 감소시키며 질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Barnett, Yoong, Pinnikahana, & Si-Yen, 2008). 특히 간호사의 교육과 중재전략이 혈액투석 환자의 식이요법과 수분조절 이행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Rusell et al., 2011) 환자의 식이요법과 수분조절 이행에 있어서 간호사의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혈액투석실의 환자교육이 대부분 천편일률적인 경우가 많으며 혈액투석을 시작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교육을 제공할 뿐 지속적인 교육은 미비한 편이었다(Yeom, 2013). 또한 간호사는 자가간호를 이행하지 않는 환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소진을 경험하며(Dermody & Bennett, 2008) 환자의 자가관리 이행과 동기화 등의 문제에 지쳐 있어 이행을 관리하는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으로 여기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acono, 2010). 특히 간호사들은 저수입, 저학력, 그리고 과제중인 사람 등을 불이행 환자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으며(Lacono, 2010) 이러한 역할 불이행 환자는 간호사에게 'bad' 환자로 각인되어 좋지 않은 간호를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Leggat, 2005). 즉, 혈액투석 환자의 식이 관련 자가간호 교육과 관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환자의 높은 식이요법과 수분조절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임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혈액투석 환자의 식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환자의 식이지식과 교육 요구도와 관련된 연구(Park, Lee, Lee, Im, & Oh, 2011) 자가간호 프로그램 연구(An, 2009; Park & Lee, 2010)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실제 임상에서 관리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시각에 초점을 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실무적응과정에 대한 연구

(Park & Kim, 2013),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Kim, 2005)를 통해 혈액투석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가 경험하는 실무적응의 어려움과 윤리적인 갈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있으나 식이와 수분관리에 대한 간호사의 경험과 인식을 충분히 탐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간호사가 혈액투석 환자에게 식이요법과 수분제한 이행을 높이기 위한 간호중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이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를 이들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간호사에게 적합한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과 관리의 어려움을 중재하는 전략 마련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상학적 연구는 간호사의 생생한 경험을 이들의 관점에서 확인, 기술하고 이러한 경험의 구조와 본질을 규명하기에 적합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사가 혈액투석 환자의 식이와 수분관리를 수행하면서 겪는 주관적 경험과 그 구조 및 본질을 이들의 관점에서 파악, 기술함으로써 추후 임상현장에서 혈액투석 환자 간호의 질적 향상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는 혈액투석 환자의 식이와 수분관리에 대한 간호사의 경험을 기술하고 이를 통해 혈액투석 환자 간호에서 간호사의 역할 이해와 혈액투석 환자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이다. 연구문제는 “간호사들이 혈액투석 환자의 식이와 수분관리를 수행하면서 겪는 다양한 경험은 무엇인가?”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혈액투석 환자에 대한 식이와 수분관리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현상학적 분석 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참여자 선정 및 윤리적 고려

연구참여자는 S시와 C시의 4개 종합병원 신장내과 병동과 혈액투석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경력 3년 이상의 간호사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총 10명이었으며 구술내용 중

의미있는 진술이 새롭게 발견되지 않는 포화상태까지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나이는 28세부터 47세 사이였고, 모두 여성으로 기혼 7명, 미혼 3명이었다. 최종학력은 대학원졸 2명, 4년제 대졸 6명, 3년제 전문대졸 2명이었으며 현 부서 경력은 4년에서 14년으로 평균 8년 6개월이었다.

연구자는 참여자와의 1차면담에서 연구의 목적 및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대한 자발적 동의와 연구참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한 익명성을 보장하며 면담내용에 대해 녹음을 실시할 것이고, 녹음된 자료는 3년간 보관 후 처분할 것임을 설명한 후 서면으로 된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3. 자료수집 및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였으며, 자료수집은 면대면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를별로 진행된 면담 횟수는 최소 2회에서 최대 3회였으며 총 24회의 면담을 하였을 때 더 이상 새로운 의미있는 진술이 나타나지 않는 시점인 포화에 도달하였다. 참여자와의 면담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고, 면담 장소는 참여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참여자가 근무하는 병원의 상담실이나 소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초기의 면담 질문은 “혈액투석 환자의 식이와 수분관리와 관련하여 경험한 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혈액투석 환자의 식이와 수분관리를 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등이었다. 2차면담에서는 첫 번째 면담 내용을 보완하는 질문이나 확인하는 질문 등 좀 더 구체적이고 초점을 둔 질문으로 “환자가 교육에 대해 부적절한 반응을 보일 경우 어떤 느낌이십니까?”, “가장 효과적인 관리방법은 무엇입니까?” 등이었다.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음성녹음을 하였으며 면담이 끝나자마자 연구자는 녹음 내용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들으면서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를 그대로 필사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진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의미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자의 준비로 연구자들은 학위 과정 중 질적 연구방법론을 이수하였으며 질적 연구학회와 월례모임에 여러 차례 참석하여 심도 있는 접근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Colaizzi (1978)가 제시한 다음의 절차를 따랐다.

제1단계에서는 참여자의 면담한 내용을 가능한 면접 당일에 녹음내용을 경청하여 참여자의 진술을 그대로 옮겨 적었고, 자료의 필사본을 읽으면서 전체적인 느낌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제2단계에서는 면담기록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진술문이 참여자의 경험의 본질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나 참여자들 간에 반복적으로 진술되는 내용에서 강조되는 부분에 밑줄을 그으면서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술은 123개가 추출되었다. 제3단계에서는 추출된 주요 진술로부터 의미를 구상하기 위해 각각의 맥락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한 단계 추상적인 진술로 구성하였다. 구성된 의미는 두 연구자가 함께 확인하고 공통된 의미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로 통합하였다. 제4단계에서는 구성된 의미를 주제와 주제모음, 범주로 분류, 조직하기 위해 두 연구자가 유사자료를 통합하여 분류된 의미들을 묶어 주제를 조직하고, 주제를 묶어 주제모음으로, 주제모음을 묶어 범주로 조직하였다. 두 연구자는 가장 적합한 주제묶음과 범주화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만났으며 추가적으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여 10개의 주제묶음과 4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제5단계에서는 주제모음들이 나타내는 현상을 주제를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기술하였다. 제6단계에서는 혈액투석 환자의 식이와 수분관리에 대한 간호사의 경험을 확인된 주제, 주제모음 및 범주의 설명을 통해 통합적으로 기술하였다. 제7단계에서는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자 3명에게 경험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자는 면담 후 바로 필사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자료는 다음 참여자와의 면담 질문 및 방향을 안내함으로써 자료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순환적으로 시행하였다.

5.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에서는 Lincoln과 Guba (1985)가 제시한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의 측면에서 연구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첫째, 사실적 가치는 참여자의 지각과 경험의 진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연구자는 도출된 연구결과를 가지고 참여자의 원래 진술로 돌아가 그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참여자의 기술을 추상적인 진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질적 연구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또한 3명의 연구참여자에게 분석내용을 제시하였을 때 참여자들이 경험한 내용을 잘 함축하고 있다는 반응을 얻었다. 둘째, 적용성은 연구가 이루어진 상황 밖에서의 결과에 대한 적합성과 제3자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연구결과가 의미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혈액투석실 간호사 1명과 신장내과 병동 간호사 1명에게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연구결과에 의미에 공감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일관성은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결과에 일관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이를 충족하기 위해 두 연구자는 연구계획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함께 논의를 하고 참여자의 진술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가장 적합한 주제를 도출하기까지 주 1회의 논의과정을 진행하였으며 수시로 의견교환을 하였다. 넷째, 중립성은 편견을 배제한 중립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선 이해, 가정, 편견 등을 개인일지에 기술하고 자료수집과 분석 과정에 이르기까지 반성적인 자료로 삼았다. 또한 자료수집이 완성될 때까지 문헌고찰을 자제하는 등 연구자의 이론적인 편견이 참여자의 기술내용에 들어가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였다.

연구결과

10명의 연구참여자로 부터 얻은 원자료에서 추출한 주요 진술은 총 123개였다. 이들 주요진술로부터 유사한 내용을 통합하여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진술로 의미를 구성한 결과 43개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었다. 이들 의미들로부터 유사한 내용으로 묶고 분류한 결과 혈액투석 환자의 식이와 수분관리에 대한 간호사의 경험을 나타내는 20개의 주제와 10개의 주제모음, 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Table 1).

1. 범주: 관리에 대한 강한 책임감 형성

범주 ‘관리에 대한 강한 책임감 형성’에 포함된 두 개의 주제모음은 ‘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낌’, ‘상대악화 예방에 치중함’이다. 참여자들은 혈액투석 환자의 식이와 수분조절은 환자의 생활에 가장 직접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로 이에 대한

Table 1. Categorizing

Themes	Theme clusters	Categor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cognizing high demand of patients for diet and fluid education · Dietary habits determining the quality of life 	Strongly agreeing with the importance of education	Developing a strong feeling of responsibility for man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cing problematic situation due to poor compliance with diet · Preparing for hyperkalemia 	Focusing on preventing condition from worse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coming a lower priority due to other duties · Not being able to dedicated oneself due to lack of time 	Not being able to do the best due to too much work	Acknowledging limits in performing du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eeling discouraged from ineffective education · Having difficulty putting up with aggressive words and behavior 	Getting tired of non-compli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ing worried about destroying relationship · Suppressing one's emotion not to provoke 	Stepping back to avoid confli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efully examining dietary habits · Examining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 of each patient 	Compiling individual information	Providing patient-centered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ing considerate of unstable psychological state · Performing management built around test results 	Considering physical and psychological st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sitive relationship making work easier · Building close relationships with patients 	Maintaining a relationship of trust	Becoming the care guide of the long treatment proc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viding repetitive training · Getting support from families of patients 	Trying hard to ensure continuous effective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cognizing efforts · Showing warmth and understanding 	Understanding difficulties and offering encouragement	

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고칼륨 혈증으로 인해 환자가 악화되는 것을 수차례 경험하면서 환자들로 하여금 그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1) 주제모음: 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낌

주제모음 ‘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낌’에는 ‘식이와 수분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높음’, ‘식습관이 삶의 질을 좌우함’의 두 주제가 포함된다. 참여자들은 갑작스럽게 식이 조절을 해야 하는 투석초기의 환자들이 식이조절에 대한 막막함과 어려움을 호소하며 교육 요구도가 매우 높으며 장기 환자들도 수많은 자가간호 중에서 식이와 수분조절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을 파악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오랜 임상경험을 통해 투석 초기에 형성된 식이 습관이 환자의 현재와 미래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절감하여 이에 대한 중요성을 환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새로 투석하시는 분이 있으면 식이조절에 대한 얘기를 꼭 해주고 싶다고 하면서 식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자료들도 있고 저희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환자분들은 계속 질문이 생기고 부족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참여자 1)

제가 임상에서 봐왔을 때, 환자들이 얼마나 좋은 식이 습관에 질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걸 저는 너무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그 얘기는 놓치지 않아요. 받은 대로 제대로 지키시라. 이 얘기는 항상 하거든요.(참여자 10)

2) 주제모음: 상태악화 예방에 치중함

주제모음 ‘상태악화 예방에 치중함’에는 ‘부적절한 식이이행으로 초래되는 문제상황에 직면함’, ‘고칼륨혈증 대비에 노력을 기울임’의 두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환자의 부적절한 식이이행이 호흡곤란, 체중증가, 투석량 증가, 저혈압 등의 이상증상과 합병증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고칼륨혈증에 대한 위험성을 환자에게 주지시키고 환자들로 하여금 극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교육에 노력을 기울였다.

문제는 고칼륨혈증이 심해지면 갑작스럽게 집에서 밥 잘 먹고 가만히 있다가 흑거덕하고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교정이 안 되면 오는 게 cardiac

arrest거든요. 그래서 포타슘이 높아지면 그냥 놔 두면 안 돼요. 갑자기 올라가서 응급으로 올 수 있거든요(중략) 원인, 증상은 이렇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교육을 하죠.(참여자 1)

범주 2. 업무수행의 한계 인식

범주 ‘업무수행의 한계 인식’에 포함된 세 개의 주제모음은 ‘과중한 업무로 최선을 다하지 못함’, ‘불이행 행동에 지쳐감’, ‘충돌을 피하고자 물러남’이다. 참여자들은 간호현장에서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식이와 수분관리에 대한 중요성만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함에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또한 이들은 수없이 교육을 하였으나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환자를 대하면서 지치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주의에 대해 도리어 심한 욕설이나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환자들에게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좌절감을 맛보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환자에게 제재나 주의가 필요할 경우에도 힘들어 형성해 온 좋은 관계가 나빠질 것을 우려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였으며 환자의 예민한 성격을 자극하여 상호간 힘들어지는 상황을 피하고자 하였다.

1) 주제모음: 과중한 업무로 최선을 다하지 못함

주제모음 ‘과중한 업무로 최선을 다하지 못함’에는 ‘다른 업무로 인해 우선순위에 밀림’, ‘시간 부족으로 전념할 수 없음’의 두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병동에 근무하는 참여자들은 식이와 수분관리보다 활력징후와 혈당 측정, 투약 등의 일상적인 업무와 증상관리, 검사 전후 간호를 더 우선시하였으며 혈액투석실 간호사들도 직접적인 투석 관련 업무와 중환자의 증상관리 등을 가장 중요한 업무로 인식하였다. 이에 그들은 식이와 수분관리의 업무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우선순위에 밀려나는 실정에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혈액투석 환자만큼 간호사의 손이 많이 필요한 환자도 없다면서 업무의 과중함에 대해 토로하며 환자를 개별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와 동시에 심리적인 여유가 없음을 안타까워했다.

물론, 제가 해야 되는 일이지... 그런데, 막상 일을 하다 보면 혈압제고 약 빨리 돌리고 쏟아지는 검사 진행하고 환자증상 봐 주고 그런 게 먼저예요.(참여자 4)

오로지 내가 환자들을 딱 눈을 대고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은 두 시간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정말 두 시간 중에

환자 면담하고 교육을 다 해야 되는데. 교육을 하다보면 시간이 부족하고. 투석실 업무 특성상 환자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참여자 10)

2) 주제모음: 불이행 행동에 지쳐감

주제모음 ‘불이행 행동에 지쳐감’에는 ‘효과 없는 교육에 회의를 느낌’, ‘거친 언행을 감당하기어려움’의 두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수없이 교육을 해도 매번 몸무게가 과도하게 늘어오고 좋지 않은 검사결과를 보이는 환자를 보면서 자신이 시행하는 교육에 허탈감과 지쳐감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그들이 시행하는 주이나 제재에 대한 환자의 욕설, 강한 거부 행동, 분노 반응 등을 경험하며 마음의 상처를 입었으며 그러한 환자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데, 제일 안 되는 거라서요. 저희 끼리도 막 교육을 하다가 결과가 안 좋으면 이걸 해도 똑 같애, 결론적으로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안될 때 정말 지치죠.(참여자 10)

죽어도 나는 이렇게 안 먹을거다, 젊은 내가 뭘 아냐, 이렇게 해서 먹으면 얼마나 더 사나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일반밥을 꼭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다음 식이에서 또 치료식이 나오면 식판을 엮고 뭐 그런 과격한 행동을 보이기도 해요. 환자들도 화가 나니까 그러겠지만... 상처를 받기도 하고 감당이 좀 안 되고, 한 번 그러구 나면 다음에 다가가기도 어려워져요.(참여자 7)

3) 주제모음: 충들을 피하고자 물러남

주제모음 ‘충들을 피하고자 물러남’에는 ‘관계에 금이 갈까 우려됨’, ‘자극하고 싶지 않아 감정을 억누름’의 두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병동 환자들이 처방식을 받아 놓기만 하고 집에서 가지고 온 김치, 장아찌, 젓갈 등을 먹거나 상두대에 군것질거리가 쌓여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하였다. 또한 과자나 커피 등을 양껏 먹으면서 투석치료를 하는 환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때, 참여자들이 적극적인 제재를 하게 되면 환자들은 도리어 참여자들에게 화를 내곤 하였다. 참여자들은 환자들과 지속적으로 만나야 하는 업무 특성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환자와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또한 그들은 환자들의 성향이 까다롭고 예민하다고 인식하여 부딪히지 않으려고 적당한 선에서 물러나는 양상을 나타냈다.

체중 속이는 어떤 환자는 아예 체중 잴 때 뒤에서 옆보지 말아라. 옆에서 확인하려고 하면 노골적으로 쾅쾅치고... 그런 사람한테 누군가가 강하게 해줄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제가 하기도 좀... 왜냐하면 어려운 거예요. 나도 좋은 관계로 생각했지만 그렇게 체중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다 하면 나서기가... 그러다가 좋은 라포가 깨지고 말도 안하는 사이가 되면 힘들죠.(참여자 9)

범주 3. 환자 중심의 맞춤 교육 제공

범주 ‘환자 중심의 맞춤 교육 제공’에 포함된 두 개의 주제모음은 ‘개인정보를 종합하여 관리함’, ‘심신의 상태를 고려하여 조절함’이다. 참여자들은 환자의 개인 특성에 대해 다른 어떤 주변사람보다도 소상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들은 환자의 식 이상태, 과거의 식습관, 생활양식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환자에게 현실적이며 실현가능한 교육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모두에게 일률적인 교육은 효과가 없다고 강조하며 개인의 심신의 상태를 반영한 교육을 계획하고 실천하였다.

1) 주제모음: 개인정보를 종합하여 관리함

주제모음 ‘개인정보를 종합하여 관리함’에는 ‘식습관 정보를 세밀히 조사함’, ‘개인 특성과 환경을 파악함’의 두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과거의 식이습관, 선호하는 음식, 섭취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였으며 환자에게 식이조사지를 작성해 오거나 사진을 찍어오도록 하는 방법을 이용해 가정에서의 식 이상태를 철저히 조사하였다. 그들은 이의 자료를 근거로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환자의 식이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특성과 환경, 즉 경제력, 결혼상태, 가족 지원정도 등을 파악하여 환자의 식이 행태를 이해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적절한 관리방법을 구상하고자 노력하였다.

환자분들이 다이어트를 적어오는 시트가 있거든요. 거기가 본인들이 투석을 안 오는 사이에 드시는 것들을 적어요. 그러구 나서 저희가 인 함량이나 포타슘 함량이나 이런 것들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피드백을 해주고 있어요.(참여자 10)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미혼자, 가정이 해체 된 사람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한 환자들은 식사도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고 의지가 현저히 감소하고 질병이 더 쉽게

악화됩니다. 이런 것을 담당 간호사가 모르면 환자 행동을 이해할 수도 없고 교육을 해도 효과는 떨어지죠.(참여자 3)

2) 주제모음: 심신의 상태를 고려하여 조절함

주제모음 ‘심신의 상태를 고려하여 조절함’에는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배려함’, ‘검사결과에 따라 집중적으로 관리함’의 두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환자의 불안이나 거부감 등의 심리상태를 예의주시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접근방법과 관리방법을 계획하였다. 또한 그들은 정기적인 검사결과에 대해 팀원끼리 원활히 정보교환을 하였으며 검사결과가 좋지 않은 환자에게는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함께 공동의 노력을 기울였다.

맨 처음에 환자분이 오셨을 때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좀 불안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을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봐야 돼요. 투석을 좀 하시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정도가 되면 환자분들 교육을 해요.(참여자 1)

월 검사결과에 따라서 전략을 세우죠. 우리방의 누구누구는 이번 달 검사가 이게 미진하니까 이것을 끌어주자. 방마다 짧게 짧게 mini discussion을 해서 목표를 정해요. 이 환자가 인이 너무 높는데 이 사람은 지금 다이어트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애. 뭐 이런 식으로요.(참여자 10)

범주 4. 긴 치료여정의 길잡이로서 자리 매김

범주 ‘긴 치료여정의 길잡이로서 자리 매김’에 포함된 세 개의 주제모음은 ‘신뢰관계를 유지함’,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 정성을 기울임’, ‘어려움을 이해하고 격려함’이다. 참여자들은 간호사와 환자의 유대적인 관계가 교육의 효과와 지속성을 촉진시키는 기초가 된다고 판단하였으며 환자의 습관을 변화시키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시로 반복적인 재교육과 보호자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였다. 참여자들은 투석 생활을 이어 나가는 환자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연민의 마음의 생김다고 하였으며 환자의 고통에 대한 간호사의 따뜻한 이해와 격려만이 환자가 기나긴 투병과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선의 방법이 됨을 강조하였다.

1) 주제모음: 신뢰관계를 유지함

주제모음 ‘신뢰관계를 유지함’에는 ‘호의적인 관계로 업무

가 수월해짐’, ‘가족처럼 가까워짐’의 두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환자와 가족 같은 정서를 나누며 친근한 관계를 형성하면 환자는 간호사를 신뢰하게 되어 치료이행 정도와 건강관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단순히 투석만 해 주는 게 아니라 가족 같은, 긴 시간 같이 하고픈 그런 관계형성이 되고요. 아 저 사람은 그냥 좀 편하고 저 사람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사람으로 남게 되는 거죠. 저도 이 환자들을 사랑해요.(웃음)(참여자 2)

2) 주제모음: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 정성을 기울임

주제모음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 정성을 기울임’에는 ‘반복적으로 재교육함’, ‘가족의 지지를 이끌어냄’의 두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환자의 습관으로 완전히 형성되어 생활 속에서 행동이 변화되기까지 반복적인 재교육을 시행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투석 환자에 대한 식이관리의 성공은 환자 본인의 의지나 지식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도움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그들은 보호자들을 정기교육에 환자와 함께 참여시키거나 수시로 환자의 정보를 교환하고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였다.

나중에는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야지 이게 실천이 되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시로 재교육을 하고 강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참여자 5)

환자가 진짜 집에서 식생활이 잘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지, 꾸준히 관리가 되고 있는지, 추후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할 때 보호자들에게 같이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잘 못 오시고, 되도록이면 이제 같이 오시도록 하고 있는데 정 안되면 교육에 대한 소책자 조그맣게 한 권 나온 게 있거든요. 참고로 보시도록 드리고. 오실 때마다 틈틈이 가르쳐요.(참여자 4)

3) 주제모음: 어려움을 이해하고 격려함

주제모음 ‘어려움을 이해하고 격려함’에는 ‘노력에 대해 인정해 줌’, ‘따뜻하게 다독임’의 두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환자의 식이이행의 어려움에 대해 연민과 안타까움으로 표현하였으며 바람직한 이행과 좋은 결과는 자신들이 시행한 교육의 효과라기보다는 환자의 뼈아픈 노력의 결과라고 인식하였다. 이에 그들은 환자가 최선을 다했음을 인정하고 환자의 노력을 칭찬하게 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환자의 불이

행 행동을 지적하는 것은 환자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하여 환자를 따뜻하게 다독임으로써 환자 스스로 조금씩 이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자세를 취하였다.

그게 워낙 힘든 걸 알아요. 교육은 뭐 말은 쉽지, 아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드셨어요. 이런 거 말하기는 쉬워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그 사람들은 조절을 한다고 한 거예요. 실행하기 힘든 거를 공감해 주고 그래도 이리이러하게 되기 때문에 조절해야 한다고 이해시키면 동조해주시고 조심하겠다고 합니다.(참여자 2)

혈액투석 환자의 식이와 수분관리에 대한 참여자들의 경험을 주제모음들이 나타내는 현상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은 식이와 수분조절에 대한 환자의 관심과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고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이상증상이나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에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식이와 수분관리보다는 시간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나 중환자 관리, 증상관리 등의 직접적인 신체간호를 우선시하게 되었으며 식이와 수분조절을 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현실적인 제약을 호소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환자를 교육하면서 허탈감과 피로함을 느꼈으며 참여자의 주어나 제재에 화를 내거나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환자에게는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는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유대감 형성이 어려운 환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감정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으며 환자들의 성향이 까다롭고 예민하다고 인식하여 그들과의 마찰을 피해 적당한 선에서 물러나는 양상을 나타냈다. 참여자들은 환경적인 제약과 심리적인 갈등 속에서도 환자 중심의 맞춤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이들은 환자의 식이상태나 개인의 특성, 생활양식 등의 정보를 면밀히 파악하여 이에 근거한 중재방법을 구상하였으며 불안정한 심리상태나 검사결과를 반영해 교육과 상담의 내용을 조절하고 목표를 조정하였다. 참여자들은 환자와 친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 형성된 간호사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교육의 효과와 이행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환자의 습관과 행동이 변화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재교육과 보호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일생동안 엄격한 식

이조절을 해야 하는 환자들의 식이이행의 고통에 대해 이해하며 이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칭찬하였으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함으로써 올바른 식이 습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간호사가 혈액투석 환자의 식이와 수분관리를 수행하면서 겪는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그 경험의 구조를 확인, 서술하였다. 연구결과, 혈액투석 환자의 식이와 수분관리에 대한 본 연구참여자의 경험은 ‘관리에 대한 강한 책임감 형성’, ‘업무수행의 한계 인식’, ‘환자 중심의 맞춤교육 제공’, ‘긴 치료여정의 길잡이로서 자리 매김’의 4개의 범주와 이들 범주에 포함된 10개의 주제모음 및 20개의 주제로 확인할 수 있었다.

범주 ‘관리에 대한 강한 책임감 형성’은 ‘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낌’, ‘상태악화 예방에 치중함’의 두 주제모음을 포함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식이요법에 대한 환자의 관심과 교육요구는 초기 혈액투석 환자와 유지혈액투석 환자에게 모두 높으며 혈액투석 환자의 식사는 단순한 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중요한 치료과정이며 삶의 질을 강화시키는 의미를 가진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Lee 등(2004)의 연구에서 보고한 혈액투석실 간호사들이 식이에 관한 교육을 중요한 역할로 여기고 있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혈액투석 환자의 간호요구를 조사한 Kim과 Kim (2011)의 연구에서 식이요법과 수분섭취 허용량에 대한 교육요구가 높았던 결과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식이와 수분조절에 대한 혈액투석 환자의 높은 교육요구에 대해 인식하고 식이 관련 정보와 지식을 지속적으로 학습하며 다양한 시청각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식이요법과 수분조절에 대한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교육전담간호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참여자들은 환자의 상태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교육에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역할을 조사한 Lee 등(2004)의 연구에서 발생 가능한 일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중요한 역할로 인식했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혈액투석 환자의 경우도 이상증상과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합병증 관리에 관한 교육요구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Park et al., 2011) 혈액투석 환자의 간호에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합병증의 발생과 직접 관련이 되는 식이와 수분관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범주 ‘업무수행의 한계 인식’은 ‘과중한 업무로 최선을 다하지 못함’, ‘불이행 행동에 지쳐감’, ‘충돌을 피하고자 물러남’의 세 주제모음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범주에 해당되는 경험의 구조를 보면 참여자들은 현재 당면한 문제 해결과 신체간호에 급급한 나머지 식이와 수분관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없음을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혈액투석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Dermody와 Bennet (2008)의 연구에서 간호 업무가 과중해 환자와 함께 문제를 토의할 시간과 충분히 교육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참여자들 중 혈액투석실 간호사는 하루 평균 6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Kim, Kwon과 Choi (2008)에 따르면 혈액투석실의 환자 수 대 간호사의 비율이 4.0:1은 유지를 하여야 하며 그 이하의 간호인력 수준(4.5:1과 5.0:1)을 유지할 경우 간호의 질, 만족도 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 인력의 비율이 환자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식이 교육과 관리를 위해서는 업무환경도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혈액투석 환자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의 환자와 여러 가지 합병증 등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신장내과 병동과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인력 조정이 필요함을 뒷받침하고 있다.

주제모음 ‘불이행 행동에 지쳐감’은 수없이 주의를 주어도 실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허탈감과 건강관리를 포기한 듯 생각되는 환자에 대한 실망, 식생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는 환자에 대한 원망 등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감정 상태에서 참여자들로 하여금 불이행의 주요한 요인은 환자이며 그러한 환자에게는 교육의 효과 및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감정 상태라고 할 수 있다. Kim (2005)은 간호사의 지속적인 교육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요구만을 강조하여 결국 위험상황을 발생시키거나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혈액투석 환자의 부정적인 반응에 간호사는 갈등을 느끼며 체념하고 포기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주제모음 ‘충돌을 피하고자 물러남’은 환자의 불안정하고 예민한 감정에 자극원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이제까지 힘들여 형성해온 환자와의 좋은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환자와의 충돌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간호사는 오랜 투병생활을 하는 혈액투석 환자와의 관계형성에 부담감을 느끼며 특별한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인간적인 모욕을 주는 환자와 감정적으로 충돌하며 일정기간 동안 힘든 환자를 회피하며 환자와의 대인관계에서 거리두기의 심적 기제를 보인다는 Park과 Kim (2013)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혈액투석 환자와 이들을 돌보는 간호사와의 상호작용과 환자와의 상호관계에서 오는 간호사의 심리적 고충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하겠다. 또한 간호사와 환자간의 갈등과 간호사의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방법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범주 ‘환자 중심의 맞춤 교육 제공’은 ‘개인정보를 종합하여 관리함’, ‘심신의 상태를 고려하여 조절함’의 두 주제모음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범주에 해당되는 경험의 구조를 보면 참여자들은 환자의 특성과 문제를 면밀히 이해하여 그에 따른 개별화, 차별화된 교육적 중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환자교육에 있어 맞춤식 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개별교육이 환자의 역할행위 이행에 효과적임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Barnett et al., 2008; Lee et al., 2009). 또한 이는 혈액투석 환자의 좋은 간호에 대해 탐색한 Yeom (2013)의 연구에서 환자는 자신의 심리적, 신체적 상태를 소상히 알고 있는 간호사의 교육을 가장 의지하였으며 간호사의 맞춤식 교육으로 자가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얻고 행동을 수정해 나간 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간호사는 환자 각각의 인지기능, 식이 관련 지식 및 정신사회적 요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정하고 불이행을 초래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개별화되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는 개별 식이분석 및 상담, 불이행에 따른 개별교육, 투석 간 전화상담 등의 전략을 활용해 환자들이 보다 나은 건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범주 ‘긴 치료여정의 길잡이로서 자리 매김’은 ‘신뢰관계를 유지함’,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 정성을 기울임’, ‘어려움을 이해하고 격려함’의 세 주제모음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범주에 해당되는 경험의 구조를 보면 참여자들은 환자와 친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환자들에게 신뢰받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간호사에 대한 환자의 신뢰감이 식이이행의 정도와 교육의 효과를 높인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참여자의 이러한 인식은 혈액투석 환자에게 간호사는 주요한 사회적 관계이며 환자와 간호사가 서로 협조적이고 조화롭게 상호작용함으로써 혈액투석 환자의 자가간호행위 이행 정도를 높인다(Choi, 2008)는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혈액투석 환자 간호에서 환자와 간호사간의 안정적인 인간관계망의 중요성과 이를 형성, 유지하는 간호사의 상호관계적 능력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참여자들은 환자의 습관과 행동변화를 유지하기 위해 보호자의 지지를 이끌었다. Lee (2012)는 혈액투석 환자 간호

에서 가족은 중요한 요인으로 자가간호 이행을 증가시킨다고 제시한 바가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식이조절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어려움을 가족이 함께 대처할 수 있도록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여자들은 환자의 식이이행의 어려움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취하며 환자에게 감성적 지지행위를 수행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지적으로 흑백을 다져주는 공정이나 정의의 윤리보다 한 사람 한사람을 어떻게 보살피느냐의 문제인 배려의 윤리를 중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환자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위로와 격려를 제공하는 것이 혈액투석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역할로 자리 잡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환자와 가장 밀접하고 잦은 접촉을 하는 간호사는 혈액투석 환자 개인의 취약한 상황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통해 진정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서의 도덕적 미덕(Kong, 2007)을 가져야 한다. 이와 함께 간호사는 환자를 움직여 올바른 식이 습관의 방향을 잡고 이를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공감과 긍정적 강화를 제공하는 의사소통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혈액투석 환자의 식이와 수분관리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 경험의 본질과 그 구조를 이들의 관점에서 탐색, 기술함으로써 혈액투석 환자의 수분과 식이와 수분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간호사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혈액투석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로 하여금 식이와 수분관리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식이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병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 및 중재 프로그램 마련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혈액투석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가 식이와 수분관리를 하면서 겪는 경험이 무엇이고 그 구조는 어떠한지 확인하고 서술하기 위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신장내과 병동과 혈액투석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10명이었으며, 자료수집은 간호사와의 개별적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자료분석은 Colaizzi (1978)의 절차를 따랐다. 연구결과, 간호사의 혈액투석 환자의 식이와 수분관리에 대한 간호사의 경험은 4개의 범주와 10개의 주제모음 및 20개의 주제로

구조화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혈액투석 환자의 식이와 수분관리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임상현장의 현실적인 제약, 불이행 환자에 대한 좌절함, 과격한 언행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함에 아쉬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적 제약과 심리적 갈등 속에서도 환자에게 개별적 맞춤 교육을 제공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환자의 생활습관과 행동의 변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간호사와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재교육과 보호자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였으며 그들이 겪는 식이이행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따뜻한 격려를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확인된 혈액투석 환자의 식이와 수분관리에 대한 간호사의 경험을 반영하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혈액투석 환자의 식이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혈액투석 환자의 식이와 수분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간호사의 고충을 중재하는 지지기반 시스템 개발을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혈액투석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와 환자와의 상호작용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REFERENCES

- An, G. J. (2009). Effects of self-care program using SMS, e-mail, or telephone call on self-care compliance and nutritional status in hemodialysis patients. *Journal of Korean Biology Nursing Society, 11*(2), 157-166.
- Barnett, T., Yoong, T. L., Pinikahana, J., & Si-Yen, T. (2008). Fluid compliance among patients having haemodialysis: Can an educational programme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1*, 300-306.
<http://dx.doi.org/10.1111/j.1365-2648.2007.04528.x>
- Cho, M. K. (2008). *Effect of health contract intervention based on king's goal attainment theory on self care behavior and physiological indices of hemodialysis pati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Choi, Y. S. (200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ompliance with sick role behavior in elderly hemodialysis pati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Colaizzi, F. U.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Vails, R. S., King. (Ed.).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Dermody, K., & Bennett, P. N. (2008). Nurse stress in hospital and

- satellite haemodialysis units. *Journal of Renal Care*, 34(1), 28-32.
- Kara, B., Caglar, K., & Kilic, S. (2007). Nonadherence with diet and fluid restriction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in patients receiving hemodialysi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39, 243-248.
<http://dx.doi.org/10.1111/j.1547-5069.2007.00175.x>
- Kim, M. S., Kwon, K. J., & Choi, S. H. (2008). A model for nursing workforce in hemodialysis room using system dynamics approach.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14(2), 71-81.
- Kim, S. J. (2005). The phenomenological study on an ethical dilemma of hemodialysis nur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S. J., & Kim, H. S. (2011). The difference between nursing demand and perceived nursing performance in hemodialysis pati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18(3), 310-316.
- Kong, B. H. (2007). *Ethics of caring in the aesthetic communication*. *Kant-studien*, 19, 101-126.
- Kugler, C., Vlamincq, H., Haverich, A., & Maes, B. (2005). Nonadherence with diet and fluid restrictions among adults having hemodialysi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37(1), 25-29.
<http://dx.doi.org/10.1111/j.1547-5069.2005.00009.x>
- Lacono, S. (2010). Staff motivation: A potential barrier to dialysis patient compliance. *Dialysis & Transplantation*, 39(2), 54-56.
<http://dx.doi.org/10.1002/dat.20409>
- Lacono, S. A. (2010). Dialysis clinician bias regarding patient non-compliance. *Dialysis & Transplantation*, 39(6), 247-253.
<http://dx.doi.org/10.1002/dat.20447>
- Lee, H. S. (2012). *Relationship among family support, self-efficacy and sick-role behavior in hemodialysis pati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 Lee, J. S., Kim, K. S., Kim, M. Y., Byun, J. H., Oh, S. B., & Koo, B. J. (2004). A study on expected nursing role in hemodialysis patients and nurses. *Journal of Clinical Nursing Research*, 7, 45-62.
- Lee, S. J., Park, H. S., Han, J. H., Kim, H. J., Seo, M. W., Choi, E. A., et al. (2009). Effects of an individualized educational program on knowledge, compliance and physiologic parameters in non-compliant hemodialysis patient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15(3), 5-16.
- Leggat, J. E. (2005). Adhere with dialysis: A focus on mortality risk. *Seminars in Dialysis*, 18(2), 137-141.
<http://dx.doi.org/10.1111/j.1525-139X.2005.18212.x>
- Licolen, Y. S., & Guba, E. G. (1985). *Effective Evaluation* (4th ed.). San Francisco: Jossey-Bass.
- Park, E. J. (2014). *The adaptation experience of hemodialysis on women with end-stage renal disea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 Park, E. J., & Kim, Y. H. (2013). A grounded theory-based approach to practice adaptation process of hemodialysis unit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9(1), 128-137.
<http://dx.doi.org/10.1111/jkana.2013.19.1.128>
- Park, H. M., & Lee, H. S. (2010). Effects of empowerment education program for hemodialysis patients on self-efficacy, self-care agency, self-care activities and physiologic parameters.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Nursing*, 13(2), 151-160.
- Park, J. S., Lee, H. S., Lee, S. Y., Im, H. B., & Oh, H. S. (2011).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and adherence to self-management guidelines, and influencing factors of adherence for hemodialysis patients.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Nursing*, 14(1), 39-46.
- Richard, C. J. (2006). Self-care management in adults undergoing hemodialysis. *Nephrology Nursing Journal*, 33(4), 387-394.
- Russell, C. L., Cronk, N. J., Herron, M., Knowles, N., Matteson, M. L., Peace, L., et al. (2011). Motivational interviewing in dialysis adherence study (MIDAS). *Nephrology Nursing Journal*, 38(3), 229-236.
- The Korean Society of Nephrology. (2012). *Current renal replacement therapy in Korea*. Retrieved October 15, 2012, from <http://www.ksn.or.kr/journal/2013/index.html>
- Tong, A., Sainsbury, P., Chadban, S., Walker, R. G., Harris, D. C., Carter, S. M., et al. (2009). Patients'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of living with CKD. *American Journal of Kidney Diseases*, 53(4), 689-700.
<http://dx.doi.org/10.1053/j.ajkd.2008.10.050>
- Yeh, S. C. J., & Chou, H. C. (2007). Coping strategies and stressors in patients with hemodialysis. *Psychosomatic Medicine*, 69(2), 182-190.
<http://dx.doi.org/10.1097/PSY.0b013e318031cdcc>
- Yeom, E. Y. (2013). *The 'Good Nursing' experienced by hemodialysis pati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